

KISTEP 통계 브리프 2008-15

IMD 국가경쟁력 분석

[과학기술경쟁력을 중심으로]



IMD 국가경쟁력 분석(과학기술경쟁력을 중심으로)

KISTEP 정보분석팀

2008년 6월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(IMD)이 발표한 「IMD 세계경쟁력 연감 2008 (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)」의 주요 내용을 정리·분석함

1.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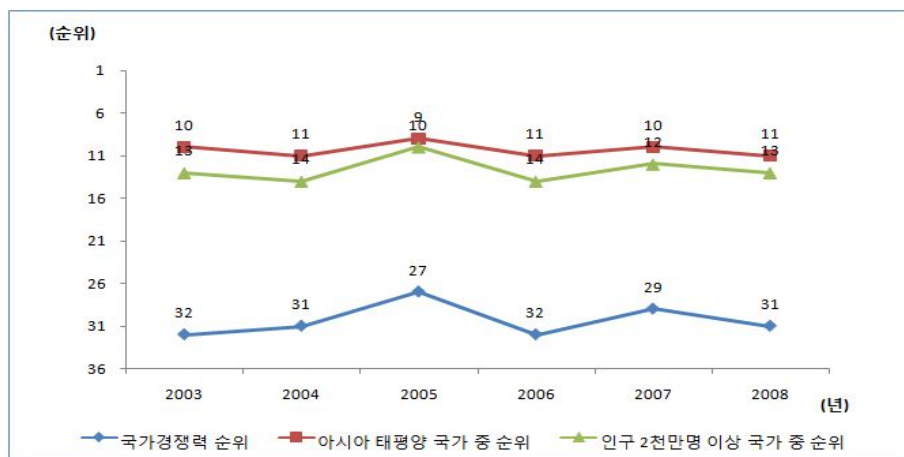
- IMD(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)는 1989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「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」을 발표하고 있음
 - 최초에는 26개 OECD 회원국과 기타 신흥 20여개 국가의 순위를 산정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별하여 발표하였고, 1994년부터 통합된 순위를 발표함
 - 2008년에는 55개국에 대해 4개 부문(경제성과, 정부효율성, 기업 효율성, 인프라구축)으로 나누고, 다시 5개 소부문으로 나누어 세부 지표별로 순위를 제공함
 - 지표는 크게 OECD 등 국제기관과 평가대상 국가의 통계자료를 수집한 정량적 지표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한 설문지표로 구성됨
- 본 자료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중 과학기술경쟁력을 중심으로 정리·분석한 자료임
 - 과학기술경쟁력은 4개 부문 중 인프라구축에 속한 2개 소부문임(과학인프라구축, 기술인프라구축)
- ※ IMD 과학기술경쟁력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임(Stephanne Garelli, 2008)

2.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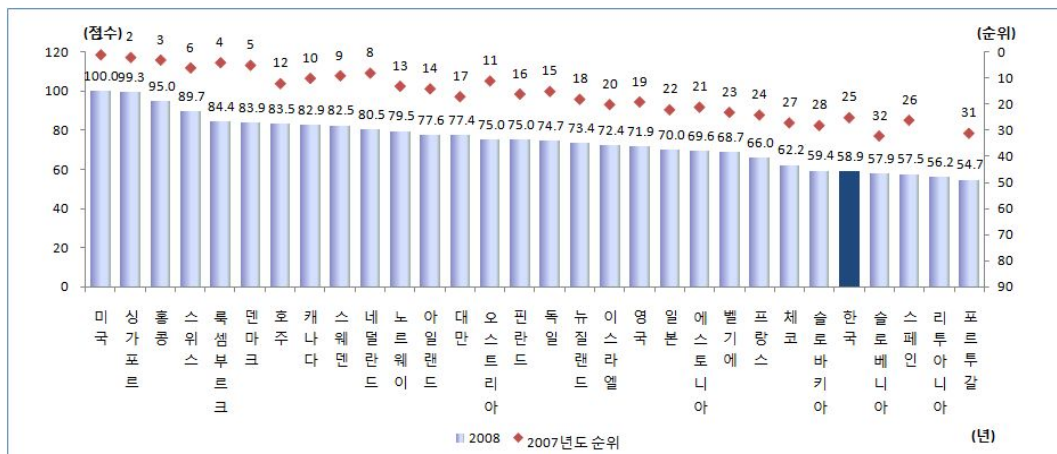
□ 국가경쟁력

- 2008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비교 대상국가 55개국 중 전년대비 2단계 하락한 31위를 기록
 - 아시아·태평양 지역 13개국 중에서는 11위, 인구 2천만명 이상 29개국 중에서는 13위를 기록함
 - 인구 1인당 GDP 만불 이상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전년대비 1단계 하락한 26위를 기록함

[그림 1]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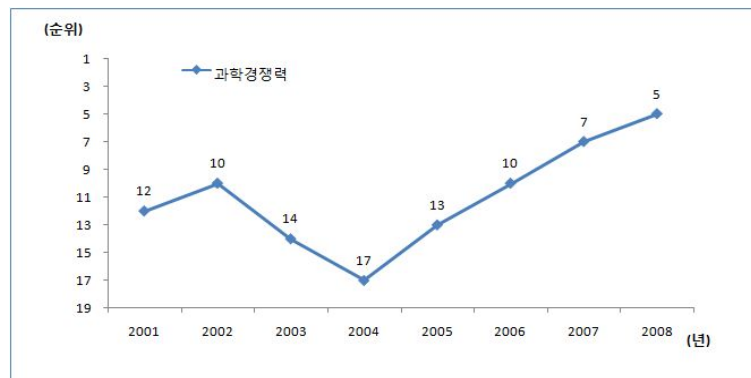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인구 1인당 GDP 만불 이상인 국가 경쟁력 순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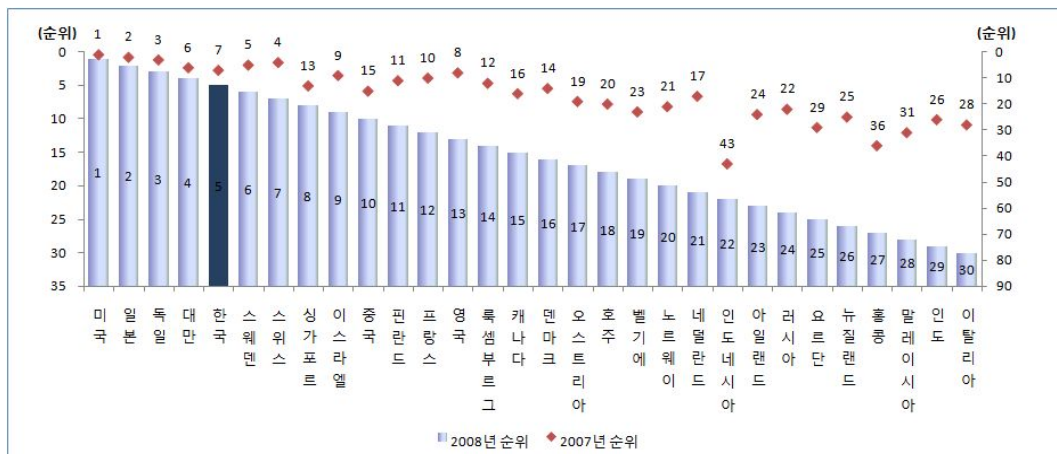
□ 과학경쟁력

-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은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5위를 기록
 -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은 2004년 17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가장 높은 5위를 차지함
- 인도네시아의 과학경쟁력은 전년대비 21계단 상승한 22위를 기록
 - 미국, 일본, 독일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상위 1,2,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인도네시아(43위->22위), 홍콩(36위->27위), 중국(15위->10위) 등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짐

[그림 3] 우리나라 과학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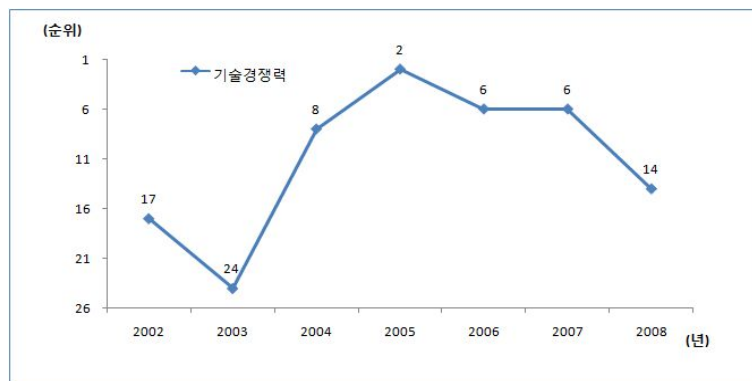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과학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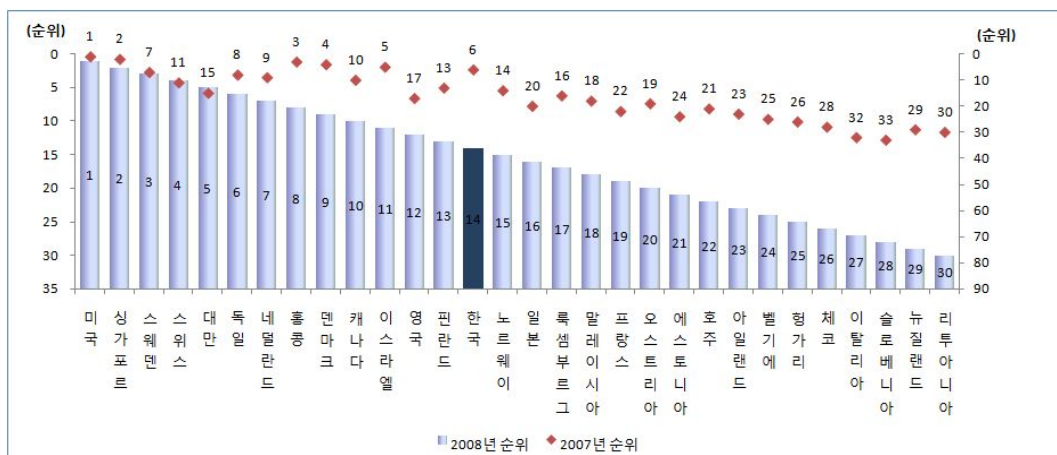
□ 기술경쟁력

-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07년 6위에서 2008년 14위로 8단계 하락
 -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2005년 2위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이루었으나, 그 이후 감소하여 2008년에는 14위를 기록
- 전년대비 대만, 스위스 등의 기술경쟁력 순위 상승이 두드러짐
 - 대만(15위->5위), 스위스(11위->4위), 영국(17위->12위), 일본(20위->16위), 스웨덴(7위->3위) 등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순위 상승이 두드러짐
 - 반면, 이스라엘(5위->11위), 홍콩(3위->8위), 덴마크(4위->9위)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순위가 하락함

[그림 5]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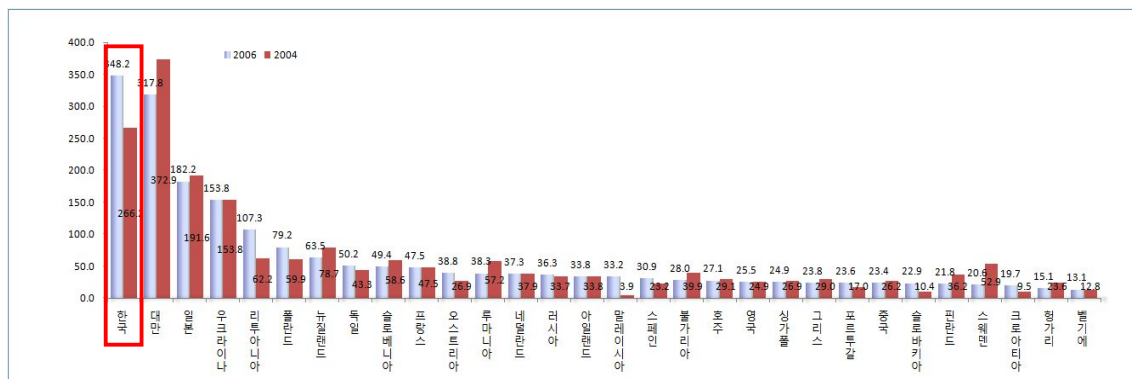
[그림 6] 기술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



□ 과학경쟁력 세부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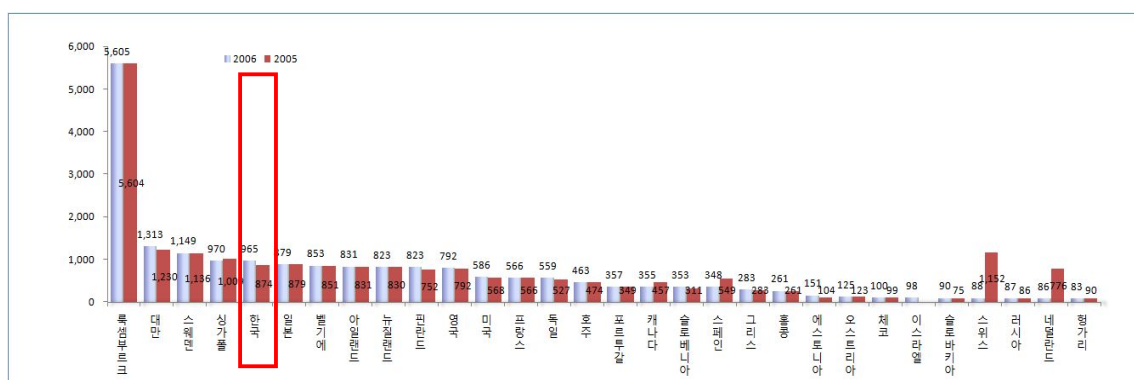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 과학경쟁력 강점은 연구개발투자, 인력, 특허의 시너지임
 - 내국인 특허획득 생산성(2위->1위), 인구 10만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(7위->5위) 등 지적재산권 관련 항목 순위가 전년대비 상승함
 - 연구개발투자, 연구개발인력 등의 높은 순위 유지가 전체 과학경쟁력 순위 상승을 견인함
- 그러나, 과학환경이 취약하여 과학경쟁력의 약점으로 부각됨
 -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는 23위에서 10위로 상승함
 - 하지만, 학교에서 과학이 강조되는 정도(7위->34위)와 청소년의 과학에의 관심도(11위->22위)는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함

[그림 7] 내국인 특허획득 생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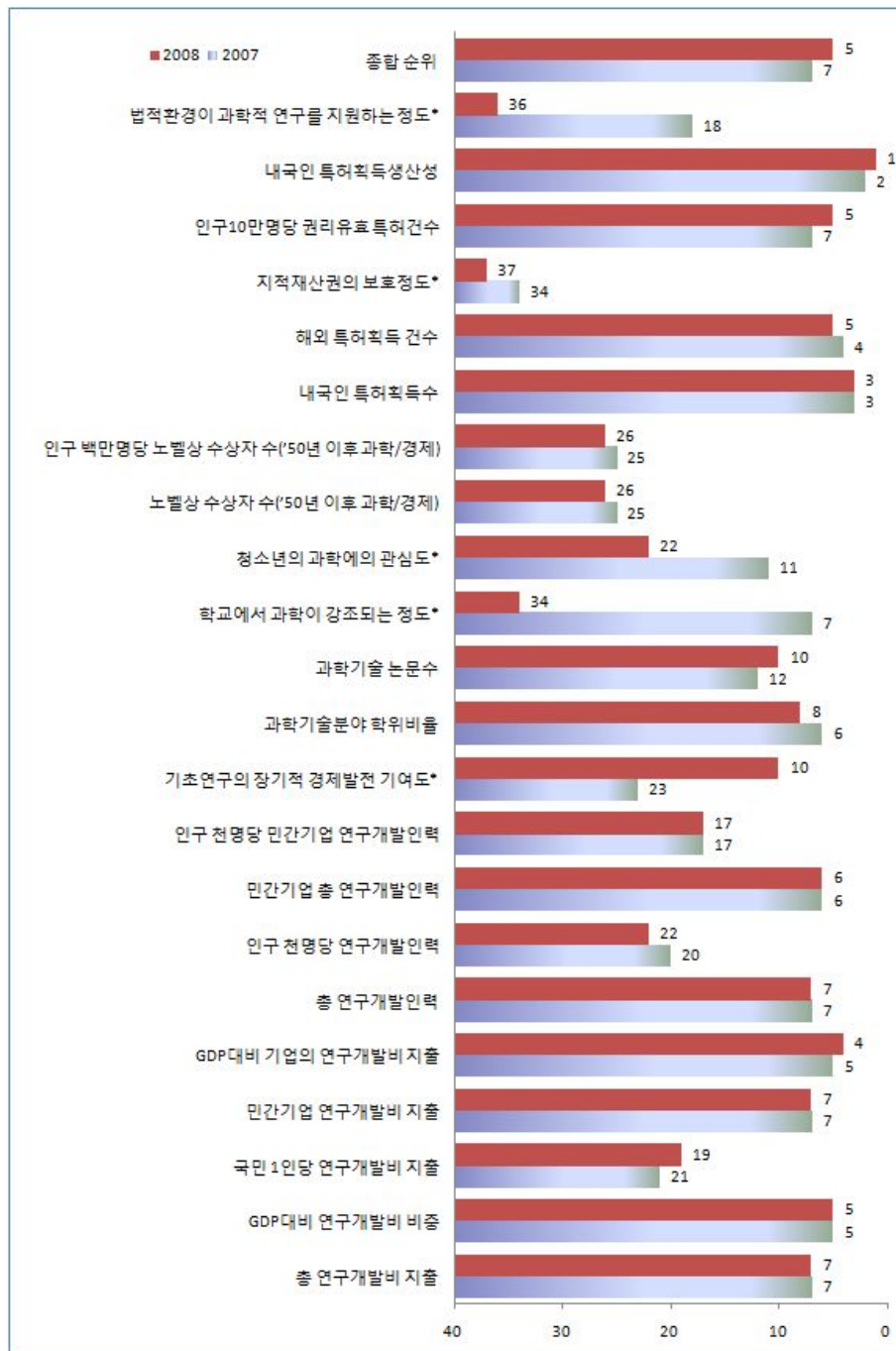


*내국인 특허획득 생산성=내국인 특허등록/ 기업체 R&D 연구인력('000s)

[그림 8] 인구 10만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



[그림 9] 우리나라 과학경쟁력 세부지표



*표시된 항목은 설문 항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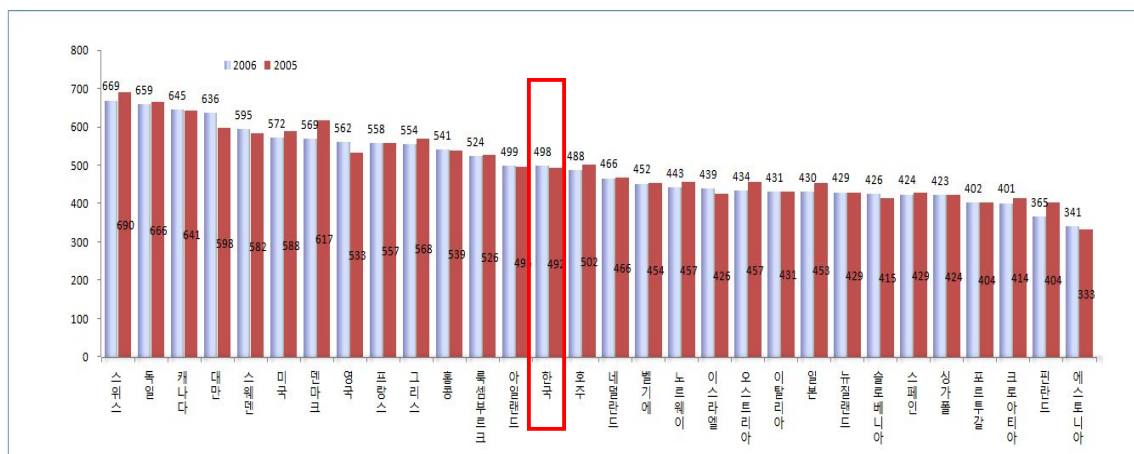
□ 기술경쟁력 세부지표

-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세부지표의 순위가 대부분 하락하여 기술경쟁력 순위가 14위로 8단계 하락
- 정량지표는 GDP대비 통신분야 투자(14위->7위), 인구 천명당 전화 회선수(16위->14위) 등이 상승하였고, 나머지는 큰 순위 변동이 없음
- 하지만,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(18위->55위), 기업간 기술협력정도(8위->31위) 등 설문항목의 순위는 전년대비 모두 하락하여 전체 기술경쟁력 순위가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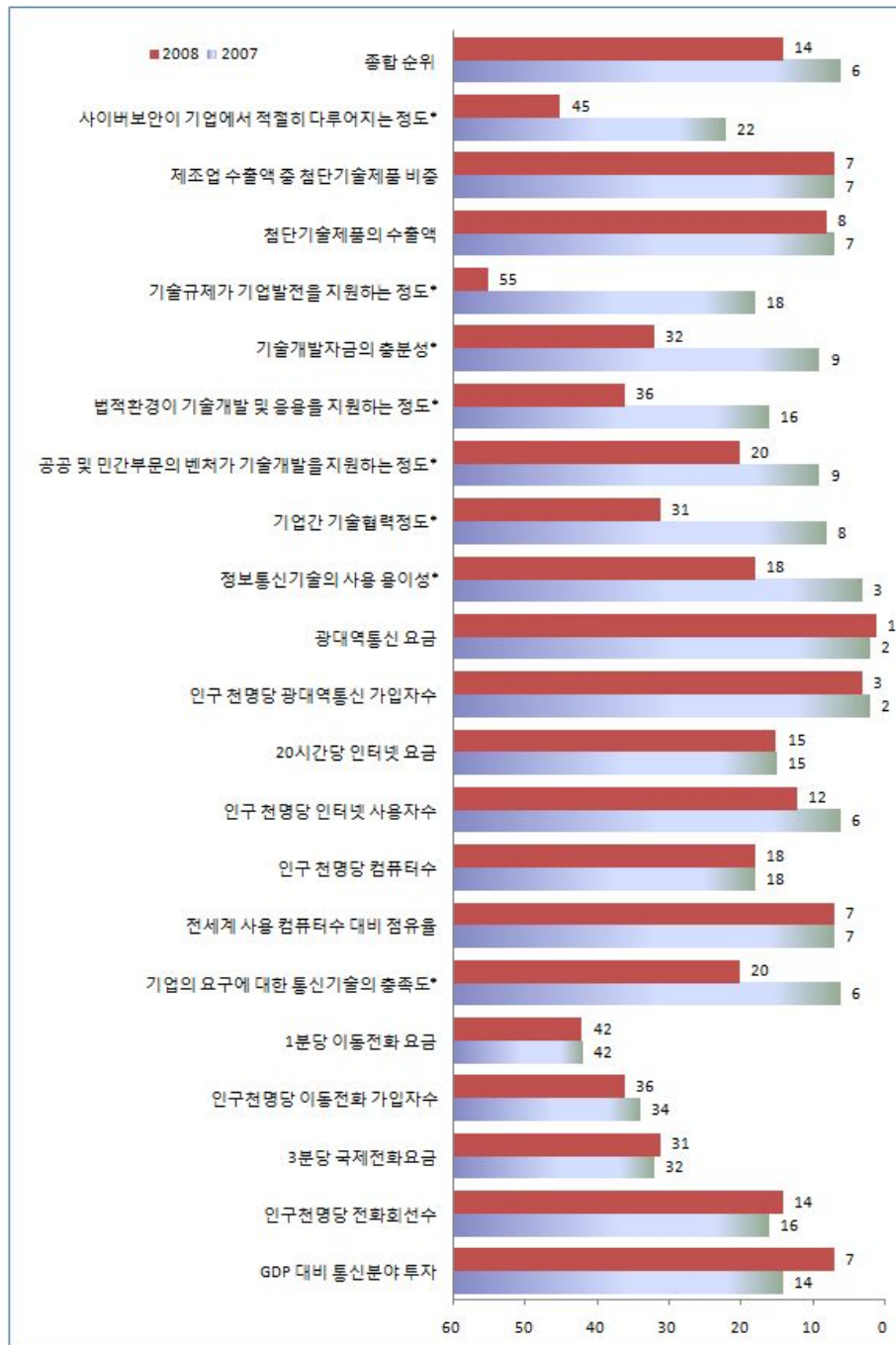
[그림 10]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



[그림 11] 인구 천명당 전화회선수



[그림 12] 기술경쟁력 세부지표



*표시된 항목은 설문 항목임

3. 시사점

- 우리나라는 정부부문 효율성 강화와 관련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등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
-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, 인력, 지적재산권 등 과학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, 청소년의 과학 관심도와 과학환경은 취약함
 -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교육시설 및 실험환경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체제 구축 마련이 필요할 것임
-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정량적 지표에는 큰 순위 변동이 없었으나,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 등 설문항목의 순위가 모두 하락하여 전년도 6위에서 14위로 순위가 하락함
 -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 환경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

* 자료원 : IMD,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

<https://www.worldcompetitiveness.com/OnLine>

* 자료관련 문의 : 정보분석팀 (02-589-2892, 김용희)